

월요광장

한 나라의 언어, 그 원형적 무의식에는



채 희 윤
소설가·광주여대 교수

한글날이 다가온다. 나처럼 언어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언어는 수단 자체가 아니라 목적이 된다. 화가에게 색이, 음악가에게 소리가 그렇듯이, 문예창작가들에게는 우리말의 결과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

어느 날, ‘간절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꼈던, 뭉은 생각을 베어 먹은 듯한 불쾌감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환절기’이고, 내겐 오태석의 희곡까지 겹쳐 첼로 소나타의 둔중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기억된다. 물론, 환절기 역시 순 한글은 아니지만 오래도록 써온

무난한 문법체계를 갖춘 단어이다. 절기가 바뀌는 시절. 그런데 ‘간절기’는 도대체 어디서 불거진 말인가? 절기 사이? 기준이 된 절기들은 뭘때? 아무튼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의 ‘베타’적 의미이다.

언어 차용이란 몹시 사려 깊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언어에는 그 언어 사용자들의 어휘적 리듬과 의미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글·우리말에는 우리 민족의 깊은 원형적 문화 인자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수족이 9월을 풀들이 마르는 달이며, 10월을 나뭇잎이 떨어지는 달이라고 지칭한 것에는 그들의 원형적 무의식 속에 잠재된 그 씨족들 나름의 무의식적 문화 에너지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계절 감각의 집단적 환원일 것이다.

찾아보면, 환절기 아니어도 더 좋게 계절의 순환을 의미하는 언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를테만 황혼을 뜻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해가 저서 개인지 늑대인지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을 가

리키는 매우 쉽고, 훨씬 더 시작하기까지 한 용례도 있다. 우리는 더 단순한 단어로 표현한다. 언어적 유포니(euphony=활음조)도 좋고 의미도 명료한 ‘어스름’ 또는 ‘해거름 잠’이라는 낱말들이다. 파스칼은 ‘밤새’에서 맑은 배열만 달리해도 딴 뜻을 갖게 되고, 뜻의 배열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효과를 갖는다고 했다. 어스름과 ‘개와 늑대의 시간’이 지칭하는 시각은 같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각각 다르고, 그럼으로써 각각 언어 사용권자들의 무의식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간절기라니, 아무리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처럼 마구잡이로 툭툭 던지며, 마치 그것이 가장 적합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얼토당토않은 일이며, 심지어 가소롭기도 하는 일이다.

그나마 이 정도까지라면 - 뭉은 감 베어 문 느낌에서 끝이었다면 - 좋다. 그런데 그것이 ‘깜놀’, ‘개무섭다’, ‘병크’에 이르면 가히 우려할 지경이다. ‘남무’란 어를 몰라서 함참을 해했던 수년 전의 기

억까지 더하여지면, 우리 언어의 병적인 활용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 깜놀은 눈치 빠른 사람들에겐, 깜짝 놀란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개무섭다의 ‘개’는 무서움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여진 접두어라 유추할 수 있다. 세상에 병크라니? 그것의 의미가 ‘병신+criticize’에 이르면 그야말로 ‘깜놀’하고, ‘개 열받아’ 병적 행동을 할 지경이다. 필자가 과문하여, 이 정도밖에 모르지만 더 많은 우리글의 황폐화가 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언어는 정신의 호흡’이라고 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정신을 생존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한 민족의 언어는 그 인종들의 민족정신의 생명의 호흡인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호흡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탱할 수가 없다. 우리 언어 속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로 지키고 발전적으로 계승 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것이다. 부디, 돌아오는 한글날에 우리의 호흡을 제대로 해보자, 폐부 깊게!

법조칼럼

신뢰와 공감



정 우 중
변호사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 중 27%만이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비리가 만연하다고 알려진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사법부 신뢰도가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굳이 이 기사가 아니라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비록 불합리하고 부정한 청탁이 전혀 없다고 확언은 할 수 없겠으나, 재판에서 전관의 영향력이나 부정한 방

범으로 재판의 승패가 뒤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 어려운 임용 절차를 거친 판사들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은 크게 의심할 것은 아니므로, 능력이나 지식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문제는 국민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바로 그것이다.

필자는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환자를 1분 동안 진료하는 의사와 10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의사가 있다면 환자는 어느 의사를 더 신뢰할까. 비록 1분 동안 진료하는 의사가 다른 의사에 비해서 다소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10분 동안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의사를 신뢰할 것이다.

최근 필자가 직접 당한 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일련의 재판 절차에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변호사 임장이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행히도 그 사건의 당사자 임장에서 보면 재판이 억울하고 불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재판부의 고압적인 태도나 언행보다 판사가 사건을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재판은 사회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절차라는 설명을 하곤 한다. 그러나 지금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인한 아픔에 공감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는지 자세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판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당한 판결문을 써낸다고 하여도 국민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고무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판사들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고, 당사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반대가 예외라는 사실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 성공 가능성 및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의뢰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은 적이 있다.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해서는 맞는 말이다.

결국,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란 서로 사정을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단순히 사법시스템의 부조리라고 치부하고 시스템을 바꾸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사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는 없는데, 복잡하게 얽힌 분쟁에서 어찌 긍정적인 답만 받을 수 있겠는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도 한결을 물리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판사가 알고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막연히 판사가 알아서 해결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당사자들이 의외로 많다. 만일 판사가 일방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들어 그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쓴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 판사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판사에게 중립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란 서로 사정을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단순히 사법시스템의 부조리라고 치부하고 시스템을 바꾸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 고

문화·예술과 동행하는 광주여행



한 희 원
한희원미술관 관장

10월에는 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고요해지고 눈매가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거리의 가로수나 언덕에 흐르 서 있는 느티나무, 지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신작로의 미루나무도 녹음의 색에서 알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잎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아마 자연이 주는 섬세한 감성의 전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몸에 걸린 거주장사리움을 하나씩 버려야만 겨울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스스로 비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비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나무는 수 만년의 세월을 통해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수많은 변천을 거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해 세월호의 아픔과 올해 메르스의 공포에서 벗어나 문화와 예술이 사방에서 축제처럼 벌어지는 가을 초입에 광주에서의 문화·예술과 동행하는 여행을 생각해 봅니다.

여행은 삶의 치열함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만이 간직한 상처들을 위로받는 일입니다. 나는 여행 중에서는 자연과 함께 예술을 만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골프를 치며 사람을 만나고 건강을 생각하는 여행도 있지만 여행 중에 미지의 자연을 만나 우연히 소담스러운 예술적 공간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몇 해전 바이칼을 여행하다 호수 옆 마을에서 늙은 할머니 화가가 운영하는 작은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노화가였지만 작은 공간에서 저리 작은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광주는 예향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으로 풍부한 예술적 자산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이 뛰어난 것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적 토양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통과 유산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러한 문화적 자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

로 인하여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우를 범한 점이 많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예술가들을 배출했으나 그분들의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이 부족하고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자연도 도시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고인드 없이 없애버려 이제는 추억 속 공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후회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광주의 문화, 예술적 자산을 보존하고 키워나가 시민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진정한 예향의 도시로 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 미디어 아트, 광주 아트 페어 등으로 세계적인 미술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옛 도정에 조성되어 개관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은 도심의 중앙에서 시작되어 문화적으로 심장의 펌프질 역할을 하여 도심 곳곳마다 문화의 신선한 피가 도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장만 뛰고 싹틔움이 약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또한 심장이 약하면 신체 끝까지 피가 돌지 않아 활기찬 몸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시민이 먼저 사랑하고 찾는 공간이 되어 이곳에 문화예술의 행위

가 자연스럽게 불꽃처럼 일어나 그 영향이 주위의 동명동, 대인시장 예술 공간, 예술의 거리, 강남로 문화 공간, 근대역사마을 양림동, 사직공원 등으로 퍼져나가 시민들의 정신적 위로를 되는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소구도로 조성된 지역의 문화 공간과 연관이 되어 도심 전체가 예술적 분위기로 바뀌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길을 걷다보면 숨어있는 문화관과 공연장이 눈에 띄고, 거리 곳곳에 젊은 예술가들의 공연이 이루어지며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예술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광주가 자랑하는 다형 김현승, 용이 박용철 시인의 시 한편 정도는 낭송할 줄 아는 그러한 예술적 자연스러움이 스며있을 때 진정한 예술로의 광주 여행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옛 도정 앞 민주광장 분수대 앞에서는 언제나 그곳에 가면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도 시민들이 맞이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위로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로 만났을 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과 동행하는 광주로의 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社 說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난 주말 무등산에서는 위압 수술을 받고 퇴원한 운영진 광주시장이 10일 만에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이 보였다. 이른 아침부터 산행에 나선 탐방객들은 장봉재·서석대를 지나 은빛 역새와 쪽발 하늘이 어우러진 무등산 정상에의 비경을 감상했다.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무등산 정상에 해당하는 지왕봉·인왕봉 일대를 개방할 이날 행사에는 무려 4만여 명의 탐방객이 정상에 올랐다. 이는 무등산 정상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오다. 하지만 어쩌다 찰끔찰끔 정상에 오르는 걸로 만족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로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획보도와 사실을 통해 이를 주장하고 제창해 왔다.

마침 엇그제 광주시정에서는 광주시와 국방부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실무진이 참여하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추진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부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국방·군사 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 방안, 대체 후보지 선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정식 협의체를 구성해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시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무등산 군부대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광주시와 관련기관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호남선 KTX 개통 6개월 이용객은 늘었으나

개통 6개월이 지난 호남선 KTX(1단계 광주 송정역~용산)가 광주·전남의 새로운 활력소로 떠올랐다. 지난 4월 2일 운영을 개시한 호남선 고속철은 지역 사회 전반에 큰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애초 건설 취지에 비춰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

호남선 충북 오송~광주 송정 구간이 고속철로 운행되고 나서 지난달 말까지 호남·전라선 이용객은 353만 4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만 6000여 명(44.9%)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반해 광주~김포 항공 승객은 44%, 고속버스는 21%가 감소했다.

전남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는 호남선 개통 이후 매달 75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태와 경관이 뛰어난 광주·전남 지역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KTX가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빠르고 편안한 KTX를 타고 수도권 백화점과 병원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 면세점 유치, 의료 수준 향상 등에 힘쓰지 않으면 되레 지역의 돈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호남고속철이 제 모습을 갖추려면 아직 일반선으로 연결돼 있는 송정역~목포구간 2단계 완공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는 2단계 구간에 나주역을 넣기로 했지만, 지역민이 바라는 무안공항 경유는 예산 부담을 내세워 나중에 협의하자며 얼버무리고 있다. 무안공항이 빠지면 국가 중요 물류 인프라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도 균형발전의 ‘견인차’로서 호남 고속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앞서야 한다. 정부는 호남고속철 2단계 완공을 서두르고, 자치단체는 KTX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우리나라 현대 화장품의 효시는 1915년에 나온 ‘박가분’(朴家粉)이다. 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아내 정영숙이 만들었다고도 전해진다.

1950년대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로소 화장을 할 뿐 평상시에는 화장을 하지 않았다. 일반 여성들은 동백기름이나 피마지기름으로 머리를 손질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화장품을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생들이었다.

화장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우리이지만 ‘박가분’이 나온 지 100년 만인 2015년 현재, 한국 화장품을 일컫는 ‘K뷰티’는 중국 시장에서 일본·미국을 제치고 프랑스에 이어 매출 2위에 올랐다. 특히 화장품 원조 국가인 프랑스의 최대 화장품 전문 매장인 ‘셰프라’에도 진출, 진열대 앞자리를 차지했다. 세계 화장품업계가 K뷰티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박가분’에 이어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30년대 러시아 상인들에 의해서다. 러시아 상인들은 아코디언을 구성지게 연주하며, 손수레에 크림을 담은 첼롱과 로션

을 담은 유리병을 실은 채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다. 이때 상인들이 친 북소리 ‘동동’과 크림을 합한 ‘동동 구리무’라는 말이 생겨, 화장품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화장품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우리 기업들에 의해 화장품이 개발되고 발전을 거듭한 끝에 한국 화장품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 중국과 프랑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몰론 미국 주요 백화점들도 한국 제품을 화장품 코너 중앙이나

전면에 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우리의 기술력이 뒤쳐져 있을 때, 일본이 ‘워크맨’이라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1개를 수십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 한 적이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70만 원짜리 고가의 한국 화장품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한다.

전자제품과 반도체,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도 국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채희중기자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